

답 변 서

- 질 문 의 원 : 김보경 의원
- 질 문 제 목 : 도시철도 1호선 옥포~구지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분리 추진, 재원 대책 관련
- 질 문 요 지
 -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시 구지까지 연장 추진 계획
 - 차량기지이전과 1호선 연장 사업 분리 추진 가능 여부
 - 산업선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중복에 따른 달성군 입장
 - 차량기지 매각대금에 대한 활용 방안 및 재원 확보 대책
 - 달성군 장기 교통 비전 및 균형 발전 전략
- 답 변 공 무 원 : 군수

<답변 내용>

1.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1호선 옥포~구지 연장 및 차량기지 이전 분리 추진, 재원 대책 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이전 사업은 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시에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적격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 구지면까지의 철도 연장의 경우 서대구역에서 시작하여 구지까지 잇는 대구산업선이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시 하루 상·하행 104편 여객열차가 배차되며, 2045년까지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산정된 운행 간격을 20~30분 간격에서 20분으로 줄여 남부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교통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1호선의 구지면 연장 또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나, 도시철도 사업 주체인 대구시의 재정 부담,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대구산업선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통합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완료 시점과 맞추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차량기지 이전 분리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대구시의 재정 부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 이전 사업을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동시 추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차량기지 이전과 도시철도 1호선 노선 연장을 별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향후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설계 및 행정절차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 시설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 대구산업선과 도시철도 1호선의 구지면 연장에 따른 중복 논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1호선은 현재 설화명곡역까지 운행 중이나, 향후 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옥포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구산업선 철도는 서대구역을 시작으로, 다사읍을 거쳐 설화명곡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며 논공읍, 유가읍을 거쳐 구지면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대구산업선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운행에 따른 교통량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철도 사업 주체인 대구시에 적극 건의하여 교통 효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 또한 대구시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통합차량기지 이전 사업 시 차량기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기존 차량기지 부지가 매각된다면 우리 군의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특별 회계 설치 등을 건의해 우리 군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현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구시 도심부가 유발하는 교통 체증 영향으로 산업단지 인근 물류 운송 지연과 비용 상승,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문제 등에 대해 장기 교통 비전을 세밀하게 검토 중이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북부와 남부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